

# 광주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재점화되나

### 이용섭 시장 “논의 피할 수 없어...상생 방안 찾겠다”

### “코로나로 어려운 때 찬반 논란 부적절”...논의 시점 유보

일부 광주시민들 사이에 요구가 커지고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가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용섭 시장은 23일 최근 일부 시민들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도시경쟁력 모두 중요하다”면서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생존권 보호와 도시경쟁력 강화, ‘월경 소풍’에 따른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한 발언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바로 소통 광주’ 제안방과 제 SNS에 많은 분이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시점을 미뤘다.  
이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상권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나눔과 연대를 통해 고난을 극복해왔고, 효율성과 편의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거나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모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시민 편의, 삶의 질, 도시 경쟁력을 외면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길게는 소상공인도 피해를 본다”고 고민 지점을 털어놨다.  
이 시장은 “여름밤에 더워서 문을 열려고 하면 다른 가족은 모기가 들어오니 문을 닫자고 한다. 이때 어머니의 선택은 모기장을 치고 문을 여는 것”이라며 “대형 쇼핑몰이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생계 위협을 우려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하고 동반 성장, 상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소상공인 생존권과 지역상권 보

호, 시민소풍 편의와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시장의 발언은 지역 상권 보호와 시민 편의 사이에서 상충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 수준이었지만 언급 자체를 꺼렸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해석이다.  
광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10개 대형마트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쇼핑과 오락 기능 집적으로 문화·관광시설 역할도 하는 복합쇼핑몰이 없어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모임이 만들어지고,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론화를 거부하는 등 점진화하는 양상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적극행정으로 영산강하굿둑 국유지 등록

전남도가 1999년 영산강 II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000㎡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 해당 토지는 1999년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농경지 등을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20여 년이 넘는 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됐다.  
이번에 공부에 등록된 제방 및 하천은 지난 3월 일반인이 제방을 불법 점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한 결과 지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 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등록하게 됐다.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사업 준공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이런 서류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 조달청, 도, 시군 상호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등록이 이뤄졌다.  
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목포시가 3만6000㎡, 무안군이 5만5000㎡이고, 제방이 6만7000㎡, 하천이 2만4000㎡에 이른다. 해당 토지는 현재 국유지로서만 등록됐고, 앞으로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관리청(국토교통부)을 지정하는 한편 권리 보전 등기를 취할 예정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한 필지의 토지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농수산물식품 英·佛·獨 등에 전문관 개설 잇따라

전남도가 미국 아마존에 이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아마존에 잇따라 진출, 아마존을 통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을 세계적인 식탁에 올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시작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한 이후 계속해서 수출물량을 확대했다. 23일에는 장성 aT비축기지에서 15개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아마존 판매를 위한 23개 제품 16만1000달러 상당의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이로써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 이번 수출물량을 포함 총 272만 달러의 온라인 수출을 달성했다.

특히 아마존 미국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유럽까지 진출, 오는 27일에는 유럽 아마존 판매용 제품 8만8000달러 상당의 수출제품 상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에 33개 농수산물식품기업의 80개 제품이 입점했다. 미국의 경우 ‘전남도가 보장하는 품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점을 TV광고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250만 한인동포는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현지인의 이용이 늘고 있다. 7월 말 현재 브랜드관 개설 초기 대비 500%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미국 아마존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아마존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독일에 이어 8월 10일 프랑스, 16일 영국 아마존에 각각 ‘전남 브랜드관’을 추가 개설했다. 유럽 아마존에서는 미국 아마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김, 표고분말, 건어물 스낵 등 15개 제품이 입점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스페인에도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하기 위해 아마존의 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태.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하리”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 한도상향”을 정부에 촉구 하고 있다.

## 광주시, 추석 전후 민생안정 지원금 400억 지급

### 내달 초 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광주시가 추석 전후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나 직업, 분야 등에 400억원 안팎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취약 계층 또는 취약 분야·직업군 등을 위한 제14차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4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시 80%, 5개 구청 20%씩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빛을 내지 않고 재난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5개 구청장들과 부담 비율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

다.  
재난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만큼 지방의회 예산 심의는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큰 계층이나 직업·분야를 선별해 지급이 압박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650여개 사회복지 시설 방역 물품 지원, 정부의 택시 기사 지원에서 제외됐던 700~1000명 등 그동안 지원에서 누락된 계층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국민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은 광주에서는 125만명, 3260억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이 가운데 지방비는 20%가량이고 지방비 부담액은 시와 구가 7대 3 비율로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시장은 “그동안 정부나 시 지원에서 소외된 틈새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고 있다”며 “시에서 빛을 내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재정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3차례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2705억원을 지원했다. 보증 금액까지 포함하면 모두 9275억원가량으로 시민의 74%가량인 107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의과대학 설립 촉구

전남지역 36개 단체로 이뤄진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이하 협의회)가 23일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확정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날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다”며 “기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으로는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 육성이 어렵기 때문에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남에서는 의과대학 설립 건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의과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목포도, 순천도, 목포시, 순천시 등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했고, 7월에는 전남시장군수연합회에서 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촉구했다. 전남 시·군 의회 의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도 전남 의과대학 설립 건의문을 채택했다.  
황금영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장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마음 졸이는 도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대로 하루빨리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목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3	
총 계		23	6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목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